

# 트럼프, 틸러슨 국무장관 전격 경질

## 남북·북미정상회담 추진속 해임 파장 후임 폼페이오 CIA 국장 대북강경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폼페이오 국장이 우리의 새 국무장관이 될 것”이라면서 “그는 멋지게 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틸러슨 장관의 봉직에 감사한다!”면서 “지나 해스펠이 새 CIA 국장이 될 것이다. 첫 CIA 여성으로 선택됐다. 모두 축하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 틸러슨 장관에게 물러날 것을 요구했으며,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틸러슨 장관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이날 귀국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지명자는 미 행정부 내 대표적 강경파이지만 최근 남북, 북미 정상회담 성사과정에서 한국 정보당국과 끈끈한 협력을 발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스펠 새 CIA 국장은 현재 CIA 2인자인 부국장으로 과거 테러리스트 심문시 물고문 등 가혹한 수사기법을 사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렸던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틸러슨 장관 경질은 북핵사태 해결을 위한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4~5월에 각각 잡히는

등 한반도 상황이 분수령을 맞은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석유회사 엑손모빌의 최고경영자 출신인 틸러슨 장관은 북한과 “날씨 이야기라도 하자”며 조건없는 대화를 거듭 주장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면박당하는 등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돼 언제든 경질당할 수 있다는 기류가 워싱턴에 퍼져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경질 후 기자들과 만나 “이란 핵협정을 비롯한 문제들을 놓고 틸러슨과 이견이 있었다”고 주요 외교정책에 관한 의견 차이가 경질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CNN 등 미 언론은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틸러슨 장관은 자신이 왜 해임됐는지 모르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경질 통보를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틸러슨 장관의 대변인은 워싱턴포스트(WP)에 “틸러슨 장관은 그의 직책을 강력히 유지하려고 했으며 해임 이유를 모른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표’를 한 직후 “틸러슨 장관이 경질 이유조차 알지 못한다”는 불만 섞인 성명을 발표한 스티브 콜드스타인 공공외교·공공정책 담당 차관도 곤이 파면됐다.

외교 수장과 최고위급 외교관의 동반 퇴진으로 국무부 내 차관 이상 고위직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을 전격 경질하고 후임에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내정했다. 사진은 이날 국무부 브리핑룸에서 퇴임 기자회견하는 틸러슨. /EPA-연합뉴스

‘2인자’ 존 설리번 부장관과 톰 새넌 정무차관만 남게 되는 등 미 정부의 외교 공백 사태는 한층 가중될 전망이다.

틸러슨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부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하고 “존 설리번 부장관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오는 31일 물러나겠다”며 “대북 최대 압박 작전은 거의 모든 사람의 기대를 앞질렀다”고 말했다.

특히 틸러슨 장관의 이탈로 존 켈리 비서실장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틸러슨 장관 등 3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어른들의 축’, 즉 즉흥적이고 무모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외교안보를 조언하고 조정해 온 축이 사실상 무너지게 돼 향후 미 행정부의 대외정책이 더욱 강경해질 공산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 행정부 내 대표적 강경파인 폼페이오

새 국무장관 지명자는 연초 “김정은이 몇 달 뒤 핵무기를 미국에 보낼 능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밝힌 데 이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대화가 시작된 지난달에는 “미국을 위협하기 위해 핵능력을 보유하려는 김정은의 야욕에 전략적 변화가 있다는 조짐은 없다. 남북 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무기 추구는 변함이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합의된 이후인 지난 11일 포크뉴스 인터뷰에서는 “미 행정부는 회담이 열려 김정은이 미사일 실험이 중단됐다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증거를 제공할 수 있기 전에 북한에 제재완화나 어떠한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연합뉴스

##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타계 가족들 “위대한 과학자이자 비범한 인물”

루게릭병을 극복하고 세계적 물리학자 반열에 오른 스티븐 호킹 박사가 타계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호킹 박사의 자녀들은 성명을 통해 “그는 위대한 과학자이자 비범한 인물이었다”며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1942년생인 호킹은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블랙홀과 관련한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기여했다. 그는 우주에 대한 상대성 이론과 소우주에 관한 양자이론을 통합하는 데 몰두했다. 1965년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뛰어난 연구성과로 연구원과 교수 등을 거쳐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케임브리지대 수학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1988년 발간한 대중과학서 ‘시간의 역사’는 베스트셀러로 등극, 세계적으로 1,000만 권 이상 팔렸다. 학문적 업적 외에도 TV 프로그램에 출연,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로이터통신은 “자신은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 라는 그림자 아래에 일하면서 삶이 복잡할 질문을 설명하려 했던 인물”이라고 평했다. /연합뉴스

## 미 - 중, 무역마찰이어 금융분야도 신경전

### 중, 펀드 자금회수vs 미, 은행 돈세탁 경고

미국과 중국이 무역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월가에 진출한 중국발 자본을 사이에 두고 금융 부문에서도 마찰을 내고 있다. 중국 국부펀드는 11년간 묻어뒀던 대미 투자금을 풀려 회수했고 미국은 중국 은행을 겨냥해 돈세탁 경고장을 날렸다.

13일(이하 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중국 국부펀드인 중국투자공사(CIC)는 미국의 대표적 사모펀드 블랙스톤에서 갖고 있던 지분을 전면 매각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블랙스톤이 지난 1일 자 공시에서 CIC가 지난달 22일을 기점으로 자사 지분을 더이상 갖고 있지 않다고 밝히면서 감지됐다.

매각 이유는 정확히 공개되지 않았으나, 시기상으로는 미중 관계가 냉각되기 시작한 최근 1년 6개월 사이에 매각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CIC는 2007년 블랙스톤의 기업공개를 앞두고 30억 달러를 투자했고 그후 11년간 투자 관계를 유지했다. 당시 지분율은 9.7%에 달해 미중 관계의 혼란을 상징하기도 했다. 블랙스톤 대변인은 지분 매각에 대해 “CIC와 맺은 협력 관계를 중요하게 평가하며, 그들의 성공적이고, 장기적인 투자에 감사

한다”고 말했다. CIC 대변인은 이번 사안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다만 중국 내부에서는 CIC의 대미 투자를 놓고 그간 일각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고 FT는 전했다. 전직 CIC 고문은 CIC의 블랙스톤 투자가 “항상 정치적으로 커다란 짐이었다”고 FT에 말했다.

CIC가 지분 매개로 거둔 수익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블랙스톤 주가는 2007년 기업공개 때 가격보다 11% 올랐으며, 당시 지분을 매입했던 투자자의 수익률은 117%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곧이어 미국 쪽에서도 중국발 자본을 겨냥한 이상 기류가 감지됐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13일 중국공산은행(ICBC)을 상대로 돈세탁 금지 방안을 강화하라는 강제 명령을 내렸다.

연준은 ICBC 뉴욕 지사의 돈세탁 방지책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했으며, 60일 안에 개선안을 제출하도록 했다. 벌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ICBC가 의심스러운 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고, 미국의 은행 비밀유지법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연준의 주장이다.

ICBC는 40여 개국에 400개가량의 지사를 거느린 세계 최대 은행이다. /연합뉴스

## 아베, 사학스캔들 연루 부정

아베 신조일본 총리는 14일 최근 중국을 강타하고 있는 재무성의 ‘사학스캔들’ 문서 조작과 관련해 “내가 (조작) 지시한 적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조작 전의 문서를 봐도 토지(특혜) 매각에 나 자신이나 부인(아키에)이 관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모리토모학원 파문은 이 학원이 재무성측으로부터 국유지를 특혜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부인이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국유지 매각을 관장하는 재무성이 모리토모에 대한 매각 관련 서류 14건의 내용을 고쳐쓰거나 삭제하는 등 조작했다는 점이 밝혀져 파문은 확대일로다. 아케은 아소 다로부총리 겸 재무상 퇴진과 아키에 여사의 국회출석 등을 요구하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총리겨냥 폭탄테러  
파(WAFA) 등은 이날 함달라 총리 경호차량들이 이스라엘 에레즈 지역을 통해 가자지구로 진입했을 때 길가에서 폭탄이 터졌으며 경호차량 3대가 파손되고 7명이 가볍게 다쳤다고 전했다.

라미 함달라 팔레스타인 총리 경호차량을 겨냥한 폭탄 폭발이 발생한 가자지구에서 13일(현지시간) 하마스 보안요원들이 현장 수사를 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뉴스통신와 AP=연합뉴스

## 식당, 커피숍, 편의점, 노래방 - 점포임대

- 지리산 온천지구 내 , 최고위치 (지리산 온천 정문앞)
- 1층 - 식당(65평), 커피숍 (55평), 편의점 (55평)  
지하 - 노래방 (85평)
- 호텔건물, 비/건 없음, 커피숍/편의점 분할가능
- 임대료 - 협의, 즉시 시설 가능
- 문의 - 010-3605-5000

## 나주, 2층주택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383
- 대지106평, 건물42평
- 1/2층 - 각 방2 화1 거실
- 집마당까지 차량 진입
- 광주에서 40분
- 즉시 입주 가능
- 보일러등 일부 수리 요함
- 시세 - 1억 1000만원  
매매 - 8200만원
- 주인직매. 010-3605-5000